

광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6곳 신청...입지선정 관심

서구 1·남구 1·광산 4곳 제출...협약 위반 동구·북구 패널티 불가피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특별지원금 500억원 등 지원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방식을 적용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에 6곳이 최종 제출하면서, 입지 선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후보지에선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소각) 시설 후보지 3차 공모에서 총 6곳이 신청했다. 자치구별로 서구 1·남구 1·광산 4곳이다. 광주시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추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동구와 북구는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추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자치구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응모조건과 입지조건에 대한 2차 검증할 예정이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에 합의하고,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선정 방식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자치구 주도의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홍보 등 친환경시설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4.5%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2월 광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찬성을 36.6%보다 크게 높인 것으로,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 설명이다.

다만 광주시와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협약을 지키지 못한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작·간접적인 패널티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구 측은 "소각장 입지 면적 조건(3만2000㎡ 이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로 소각장 시설이 들어가기 부적합한 곳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으며, 북구 측은 "후보지 3곳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3곳 모두 환경평가 1~2등급이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건립 부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3차 공모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자치구에서 제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광주시 여건상 가장 적절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춘마이크 페스타” 함께 즐겨요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날수 있는 '청춘마이크 페스타'가 지난 26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려 리얼아트컴퍼니의 열린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청춘마이크 페스타'는 2024청춘마이크 전라·제주 권역 참여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관객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다.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날수 있는 '청춘마이크 페스타'가 지난 26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려 리얼아트컴퍼니의 열린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청춘마이크 페스타'는 2024청춘마이크 전라·제주 권역 참여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관객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반도체·지역전략산업에 AI 입힌 '광주형 AI 반도체' 개발 나선다

시, 팹리스 기업 에임퓨처와 협약 광주법인 설립...기술 개발 등 협력

광주시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에임퓨처를 유치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팹리스(Fabless) 기업은 반도체를 직접 제조(fabrication)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광주시는 지난 9월에도 지역 최초로 팹리스 기업인 에임퓨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망 처리에 효율적인 신경망 처리장치(NPU) 개발 기업인 에임퓨처와 22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지역 관계기관과 에임퓨처, 에이비즈,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프리미엄 등 기존 유치기업과 에이프로션, 에알파눅스, 엔에이치네트웍스, 에이치스, 에이노담, 인트플로우, 에호그리너 등 지역 수요기업이 함께 했다.

이번 팹리스 기업 유치는 지난 9월 (주)에이비즈를 유치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광주시의 미래 전략 사업 중 하나인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임퓨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LG전자 미주연구소에서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을 연구하던 소속 연구원들이 2020년 설립한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다. 현재 인공지능(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알고리즘·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과 지식·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에임퓨처는 '광주형 AI반도체' 기술 개발과 반도체 설계분야 지역인재 육성·채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에임퓨처는 기존 유치기업인 에이비즈

랜드·(주)비즈·(주)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프리미엄과 함께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광주형 AI반도체'인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반도체칩과 솔루션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한국광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연구원·호남과학기술대학교병원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연계 '광주형 AI반도체'의 실현 가능성 검증(PoC) 등에도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AI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갖춰진 덕분에 수많은 기업이 광주를 찾고 있다"며 "광주형 AI반도체칩을 설계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검증하고 제품화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선순환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크다. 기업·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반드시 AI반도체 클러스터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 공항 이전' 3차 회동·범정부 지원 힘 모은다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차 회동, 범정부 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어 광주시당이 힘을 모아준다면 군 공항 이전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3차 회동 재개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양부남 의원은 지난 21·22일 광주·전남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 강기정 시장이 사과할 경우 3차 회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기정 시장에게 그동안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며 "자치단체 간 감정싸움과 입장 차이로 중단됐던 논의에 대한 극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당은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광주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광주·전남이 상생과 협력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지난달 23일 '민주당·광주시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당에 건의했던 것처럼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강 시장이 요청한 '범정부 협의 운영' 등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F1 이색 체험'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성료

1만 2000여명 몰려

"2024 전남캠핑관광박람회"가 1만 2000여 캠핑족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3일 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전남캠핑관광박람회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레저스포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캠핑 경험을 선사했다.

국내외 최신 캠핑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회와 함께 안전한 캠핑 방법과 자연 보호 캠핑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퀴즈체험도 열려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F1 경기가 열렸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의 캠핑이라는 테마에 맞춰 참가자들은 경주장 서킷 트랙 하이킹체험, 카트체험 등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남 지역 특산물 할인판매 행사도 열려 캠핑 요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사려는 캠핑족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가 국내외 캠핑 관광객에게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전남을 글로벌 캠핑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 행사로 평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